

3/16(수) 룻기 1-4장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부흥

사사 시대는 무심하고 무정한 무정부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타락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룻기는 동시대 이야기를 통해 회복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나(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1:2, 엘리멜렉의 이름 뜻).

회복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개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여인 룻과 나오미를 캐스팅하셨습니다.

흉년의 때처럼 황폐하고 황량하고 혼돈한 사사 시대를 향해

회복과 구원, 부흥의 처방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헤세드) 챌린지가 인간들 사이에도 계속됩니다.

신명기 법전이 말하는 나눔과 살림, 책임, 돌봄, 배려의 덕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합하여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살립니다(신12-26장).

흉년, 죽음, 실패, 빈손, 소망 없던 괴로운 인생이(1:11,21),

기업을 잊고 생명을 회복하며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4:10-22).

룻기는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더 넓은 범주의 사람들을 공동체의 주요한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폭력과 납치의 대상이며 물건처럼 취급되던 여성들(삿19-21장),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대상으로 언급되던 이방인(신 23:3-4, 모압),

모세(에스라)가 강력하게 경계한 이방 출신 배우자(스10장).

이 모두가 <하나님 신앙>을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룻기는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이 확고한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Grand story) 캐스팅하십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평범한 사람들, 소박한 이야기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왕들의 대서사시로 이어집니다(4:17-22).

회복과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까?

❶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중심 신앙>이 견고히 자리 잡았습니까?

❷ 하나님의 <은혜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돌봄, 나눔과 살림, 배려와 책임)